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February 21 2025 Vol. 949

"종교의 자유, 싸우지 않으면 잃는다"

태평양 법률 협회 주최 제4차 '법과 교회' 컨퍼런스 브래드 대쿠스 박사, 마이크 페퍼 변호사, 주성철 교수 강의

2월 15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LA한인타운 평화교회(김은목 목사)에서 제4차 '법과 교회'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브래드 대쿠스 박사(태평양 법률 협회 Pacific Justice Institute 설립자 및 대표), 마이크 페퍼 변호사(PJI 남가주 상임 변호사), 주성철 교수(PJI 한국부 담당자, 교수)가 세 가지 주제로 강의를 이끌었다.



2월 15일(토) LA한인타운 평화교회(김은목 목사)에서 제4차 '법과 교회'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브래드 대쿠스 박사(PJI 설립자 및 대표)는 현대 사회의 도전에 기독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강의했다. ⓒ기독일보

대쿠스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혐오하는 자가 미국의 다수가 되었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유대 민족이 대량 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해 모르드개가 담대하게 부르짖었듯 세상이 법과 제도로 크리스천들을 위협할 때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했다.

"에스더처럼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하는 조건을 생각하면서 행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예수를 전하면 법적 피해를 입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학교 보드 미팅에 가서, 도서관에 음란 도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두려워한다. 목회자들도, '이런 말씀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거야' 라며 어떤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는 에스더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획을 뒤집었다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극복하실 수 있다.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르드개를 살리신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했다.

이어서 LGBTQ를 장려하고, 무지개 깃발을 교실에 걸어 놓도록 강요하는 캘리포니아 교육국에 대항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일들을 간과하지 말라 한다"고 말했다.

대쿠스 박사는, PJI가 '교회 내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것'을 돕고 있으며, 이 사역이 노령화되고 있는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캘리포니아 LGBTQ 교육 정책에 반기를 든 학부모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또, 비지니스 현장에서, 혹은 사업 및 기업체의 고용주로서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신앙의 표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요구 아닌, 신앙적 요구임을 분명히 하라"

마이크 페퍼 변호사가 두 번째 강의 '공립학교 내 부모의 권리와 학생의 종교 생활'를 이끌었다.

그는 "부모의 가치관에 의해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다는 논의가 대법원에서 계속되어 왔다. PJI는 부모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움을 지속해 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저희 단체는 시민의 권리와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사건을 다룬다. 미국에서, 종교적 자유에 관한 문제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공립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적인 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립학교 교사 가운데는 크리스천도 많지만, LA통합 교육국에 의해, 그들의 신앙에 어긋나는 일들을 강요받고 있다. 연방정부의 법에 의하면, 직원이 고용자에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법적 논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신앙적인 요구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미성년자가 자기 성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대명사 사용을 요구할 때, 선생님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남가주 어느 교육국에서는 자녀가 대명사를 바꾸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부모에게 알릴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자녀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성정체성을 부모에게 숨기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

페퍼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교육국의 반기독교, 반성경적인 방향성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조언했다. "여러분 자녀들의 선생님에게 다가가야 한다. 자녀들이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고 배우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스쿨보드 멤버를 투표를 통해 뽑는데 성경적인 사람을 뽑아야 한다. 자녀들이 크리스천 클럽에 참여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크리스천 클럽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게이 클럽이 없는 하이스쿨이 남가주에 없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클럽을 만들 권리가 있다. 입법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바로 여러분이 역사를 바꾸는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

마지막 강의 '아동 보호 서비스가 당신 문을 두드리기 전에'는 주성철 교수가 이끌었다.

주성철 교수는, 아동 보호 서비스(CPS)에 의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된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나누었다.

그가 제시한 조언들은, ▶교사와 좋은 유대 관계 형성, 학교 교육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 ▶지역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섬기라. 교회 목회자, 청소년 지도자 및 교인들이 부모를 대신 대변한다. ▶공개적 체벌을 사용하지 말라. ▶12세 미만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하지 말라. 과거 비행 기록이 있는 아이는 혼자 두면 안 된다. ▶홈스쿨의 경우, 각주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 ▶자녀에게 성정체성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본 협회의 도움을 받으라 등이었다.

이 컨퍼런스는 International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와 남가주 교회 협의회가 후원했다.

주디 한 기자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지침 제공한 PCA 논란

미국장로회(이하 PCA) 산하 단체인 북미선교회(Mission to North America, 이하 MNA)는 최근 공식 웹사이트에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의 구금을 피하는 방법'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MNA는 1월 게시했던 "교회를 위한 난민 및 이민자 사역: 2025년 정책 변화에 직면한 이민자 돕기"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삭제했다.

해당 페이지는 "합법적 신분이 아니라면 출신 국가가 적힌 서류를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조 이민 서류를 휴대하지 말라", "이민세관집행국에서 연락을 받으면 출신 국가를 알리지 말라", "당국에 범죄 기록을 말하지 말라" 등의 지침이 담겼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 중인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종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MNA 어윈 인스(Irwyn Ince) 이사는 해당 지침이 삭제된 후 성명을 내고 "MNA 지도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당국에 구금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콘텐츠 게시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우리는 시민 행정관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의무라고 확언한다(WCF 23.4, 로마서 13:1-4, 베드로전서 2:13-14). 그렇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은 죄다. 우리가 우리의 성경적·고백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이를 회개하고 사과드린다. 또 우리 교회에 혼란과 문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전에 게시된 모든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Proverbs318Law.com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미드웨스턴, UCLA 교수 초청 〈한국 현대사와 기독교〉강의

제22차 온라인 컨퍼런스
2월 25일(화) 저녁 5:30-7:30 (서부 시간)

교회를 위한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For the Church'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2025년 첫 번째 온라인 컨퍼런스의 강사로 UCLA 석좌교수인 옥성득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 현대사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오는 2월 25일(화) 저녁 5시 30분부터 7시 30분(미국 서부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컨퍼런스로 진행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이해를 통해 건강한 교회의 방향성을 바라는 목회자 및 신학자, 신학생들에게 좋은 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강사인 옥성득 교수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한국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UCLA에서 한국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옥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미친 영향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첫 사건으로 본 초대 한국 교회사』, 『대한성서공회사』 등이 있다.

또한 한국기독교사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기독교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히 한국의 경제적 부흥과 기독교의 부흥의 연관성, 민주화 운동과 사회 개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현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등록링크를 통해서 컨퍼런스 신청이 가능하다.https://us06web.zoom.us/meeting/register/ktIDtLl2-RqyXYRDZWB_Duw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는 남침례회(SBC) 산하 여섯 개의 신학대학원 가운데 하나로 북미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정식 인가되어 있다. 현재 한국부는 약 720여 명으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 과정 가운데 북미 최대 규모이다.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신약학, 성경사역학, 교육학, 목회학 등 다양한 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목회학 석사 과정을 비롯하여 교육학, 예배학, 상담학 등의 석사과정 역시 제공하고 있다.

미드웨스턴 입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웹사이트(www.mbts.edu/ks)나 한국부의 김동규 팀장(이메일: ks@mbts.edu; Tel.: 816-414-3754)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미드웨스턴는 UCLA 석좌교수인 옥성득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 현대사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오는 2월 25일(목) 저녁 5시 30분부터 7시 30분(서부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미드웨스턴

미주평안교회서, 보나뮤직 2025 Winner Concert

한국 가곡과 동요를 미주사회에 널리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비영리기관 보나뮤직(BONA Music, 대표 이혜자)이 오는 3월 8일(토)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에서 "2025 Winner Concert"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1월 파세디나 드림교회에서 열린 '보나뮤직 동요대회(BONA Music Korean Children's Song Competition)'에서 수상한 어린이들이 무대에 오른다.

50여 명의 수상자와 행사에서 수고한 교사진이 '자전거'와 '어린음악대' 등의 동요 메들리를, 영엔젤스 합창단, 보첼레스티 어린이합창단 등이 아름답고 정겨운 한국동요를 부를 예정이다.

지난 해 11월 23일에 개최된 '보나뮤직 동요대회'는 "동요로 한글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패서디나 드림트리 커뮤니티 센터가 후원했으며, 100여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바 있다.

문의 : (213) 300-7214, bonaalee12@gmail.com
보나 뮤직 콘서트 일시 및 장소
3/8(토)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보나뮤직이 3얼 8일(토)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에서 "2025 Winner Concert"를 개최한다. ⓒ보나뮤직

나침반교회 담임 목사 청빙

나침반교회 민경엽 담임목사가 2025년 12월 31일로 정년 은퇴하게 된다. 이에 나침반교회는 다음 세대의 나침반교회를 이끌 새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청빙 자격은 1. 구원의 확신과 목회 소명, 2.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 영적 리더십 3. 미국 장로교(PCA) 교단에서 인정하는 미국 또는 한국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M. Div., Th.M, Th.D.), 4. 목회(이민목호) 경력 5년 이상(담임 목사 경력 2-3년 이상 선호), 5. 영어와 한국어 사용 가능 6.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7. 미국 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제출서류에는 1. 본인 이력서(3개월 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 사진), 2.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님(신앙 간증, 사회 경력, 목회 비전), 4. 추천서 2부(밀봉): 동역한 목회자 2명, 지인 1명, 5. 최근 6개월 내 설교 CD 2편 또는 DVD 2편, 또는 동영상, 웹사이트 주소, 6. 자격 조건과 모든 제출에 대한 본인의 서약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은 6월 30일이다.

제출 주소: Attention: James Paik 2270 Rosecrans Ave. Fullerton, CA 92833 **문의:** 714-853-3266, CNGJSP@yahoo.com



➔ 1면 기사 〈불법 이민자들을..〉에 이어서 "MNA의 난민 및 이민자 사역은 '교회가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MNA는 법률 자문, 정치 캠페인, 또는 정치적 입장 제공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앞으로 게시될 정보는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을 위한 우리의 신앙고백에 따른 교회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리어주에 있는 안디옥장로교회(Antioch Presbyterian Church) 담임이자 북미선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재커리 그로프(Zachary Groff) 목사는 "교단 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침을 알고 놀랐다"며 "PCA의 일반 교인들은 이 내용을 지지하지 않았다"라며 이 상황은 "PCA의 진보적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려는 선의의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PCA는 교회이자 다양한 사역 기관으로서, 회원들에게 국가 법률을 따르고 준수하도록 격려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공식적인 자격으로든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도 없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베델교회 봄 부흥회,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

류인현 목사 '그리스도인의 행복' 주제로 설교
감사는 감정 아닌 의식적 선택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가 14일(금)부터 16일(주일)까지 류인현 목사(뉴욕 뉴프론티어 교회 담임)를 초청해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주제로 2025년 봄 부흥회를 개최했다.

16일 주일, 류인현 목사는 "감사하니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며, 신앙 속에서 감사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 메세지를 전했다. 그는 현대 사회가 불평과 원망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류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127시간을 소개했다. 이 영화는 한 청년 아론 랄스턴이 미국 유타주 블루 존 캐니언에서 홀로 등반을 하던 중 바위에 팔이 끼어 고립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극한의 상황에서 그는 스스로 팔을 절단하고 가까스로 생존했다.

류 목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를 설명했다. 그는 "하나는 상황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예기치 못한 사고나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다.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했다.

성경 속 다니엘도 극한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인물로 소개됐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 높은 지위에 올랐던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그는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왕의 칙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그는 위협 앞에서도 변함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

류 목사는 "다니엘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강조했다.



베델교회에서는 류인현 목사(뉴욕 뉴프론티어 교회 담임)를 초청해 봄 부흥회를 개최했다. 류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주제로 14일 부터 16일까지 집회를 이끌었다. ⓒ베델교회

류 목사는 감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상대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 감사'다. 그는 "상대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자연스럽게 드리는 감사이다. 건강할 때,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 관계가 원만할 때 우리는 쉽게 감사할 수 있다"라며 "신앙적으로 더 깊은 차원의 감사는 '절대 감사'이다. 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며,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라고 했다.

이어 "혹시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라"며, "진정한 감사는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고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주님세운교회 신용환 담임목사 취임식

3월 16일 4시, 원로목사 추대 담임 목사 취임식

박성규 목사의 후임으로 신용환 목사를 2대 담임 후임목사로 청빙하여 6개월 간 동사 목회 기간을 가진 토렌스 주님세운교회가 오는 3월 16일(주일) 오후 4시에 박성규 원로 목사 추대 및 신용환 담임목사 취임식을 거행한다.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고려신학대학원 M.Div.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에 진학 중인 신용환 목사는 대구동일교회, 부산거제교회 부목사, 선한청지기교회 부목사, 나성한미교회 6대 담임목사로 사역한 바 있다. 가족에는 신현아 사모와 두 자녀가 있다.

박성규 목사는 주님세운교회에서 20년간 사역하며 터키 난민선교운동, 동성애 반대, 평등법 반대,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 서명운동과 미국청교도신앙회복 다민족연합기도회 등 교계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다.

주님세운교회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왕상19:18)의 제자훈련 받은 성도들을 이 시대 파수꾼 성도로 세우는 교회, 기드온의 300용사(삿7:1-8)와 같이 훈련된 3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선교의 항공 모함이 되는 비전을 품고 있다,

조셉 리 기자



LA한인사회 경제 부흥 위한 조찬 기도회

LA한인사회 경제 부흥을 위한 상공인, 목회자, 커뮤니티 리더 초청 조찬 기도회가 조선일보LA 주관,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및 다민족연합기도운동 후원으로 2월 28일(금) 오전 8시 옥스포드 호텔 1층 세미나 룸에서 열린다.

기도회는 1부 예배, 2부 식사 및 토론, 3부 마무리 예배 순으로 진행되며, 강태광 목사(다민족연합기도대회 사무총장)가 준비위원장으로 섬기며,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후 하버드 신학대와 프린스턴 신학대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준식 목사(남가주 샬롬교회 담임)가 설교를 맡았다. 예약접수 마감은 2월 21일(금)이다. 김민선 기자

문의: 323-578-7933(목회자), 213-926-3178(상공인)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준비 무료 공개 강의

2월 28일 (수) 5:30 OC강의실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준비를 위한 무료 공개 강의가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2월 26일(수) 오후 5시 30분 OC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비영리 단체는 소득세 감면 및 기부 세금 해택을 받기 위해 Tax Exempt를 신청하여 IRS와 CA FTB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영리 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990-N, 990EZ, 990으로 구분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는 매년 5월 15일 전에 보고를 해야 하며 3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Tax Exempt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비영리 단체가 세금 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Tax Exempt 신청 및 그랜트 신청시 필요한 Financial Statement 를 어떻게 작성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본 무료 강의는 비영리 단체 설립과 세금보고에 관심이 있거나 효과적인 운영을 원하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비즈니스 선교, 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에게 좋은 기회이다.

강의와 관련한 기본 자료와 강의 장소(오랜지 카운티 OC 강의실)는 강의 신청을 등록하신 분들에게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제공되며 ICMM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일시: 2월 26일 (수) 오후 5: 30
웹사이트:http://www.church-homepage.org (ICMM 선교회)
문의: 949-667-0264 (J. Lee, JDSN) 714-393-4595(Center)
이메일 icmm@churchhomepag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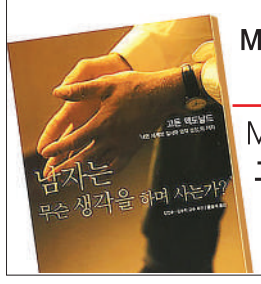
교회안의
남성사역
어렵지요?

QR코드를 스캔해서 등록 하세요.

The Lord is giving us the Answer!



"My Journey"의 저자 Patrick Morley 목사는 평생 남성사역을 연구해온사역자로서 그의 수많은 저서와 경험을 총정리하여 펴낸 책 My Journey를 통하여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남성 사역과 남성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해답을 내어 놓았습니다.
My Journey의 한글판 "내 삶의 여정" 이병일 목사 번역



MIM Korea가 참석자에게 드리는 **특별선물 고든 맥도날드**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등록 선착순 30명 한정

남성사역 컨퍼런스
강사 이병일 목사

2025년 3월 24일 (월)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장소: L.A. 사랑의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Olympic과 Elden
참가비: 무료 / 샘플교재 및 점심제공
주최: Man in the Mirror Korea
대표 이병일 (Bryan Lee) 목사
(213) 435-6009 / bryanleemog@yahoo.com
주관: 기독일보 (213) 434-1170

리버티 대학, 북한의 자유 위한 '유니파이 코리아' 행사 열려

3/11(화) 오전 11:15
바이올라 대학, 8.15 80주년 향한 150일 모임



리버티 대학교는 음악 및 워십 센터 콘서트 홀에서 2월 7일(금) 북한 난민의 상황과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유니파이 코리아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날까지 200일을 앞두고 기획됐다. ©liberty.edu

리버티 대학교는 2월 7일(금) 유니파이 코리아(Unify Korea) 행사를 개최해 북한 난민들의 상황을 나누고 북한의 자유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길 촉구했다. 이 날 행사는,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날까지 200일을 앞두고 기획됐다.

이 행사는 LU One , 유니파이 코리아(Unify Korea) 학생 클럽, 리버티 대학교 존 롤링스(John W. Rawlings) 신학대학원의 협력을 통해 열렸으며, 탈북자 주경배 목사, BB 김 선교사, 김규민 영화감독, 2017년 1년 이상 북한에 억류되었던 토니 킴 교수가 패널 토론에 참여했으며, '리버티의 법률 및 정부 센터 수석 전무이사'이자 미국 국무부 전직 대사인 모스 탠(Morse Tan)과 글로벌 연구 교수인 팀 창 박사가 함께했다.

신학대학 학장인 트로이 템플(Troy W. Temple) 박사의 기도로 행사가 시작됐다. 이어서, 모스 탠이 지난 세기 동안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가져온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세계 최대 박해국 중 하나인 북한에 의해 남한이 합병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이는 생명과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서, 패널리스트들은 한국을 탈출한 경험을 나눴다. BB 김 선교사는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인신매매, 중국 정부에 의한 강제 낙태를 겪고, 북한에 투옥된 와중에도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간증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북한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범죄로 공개 처형을 선고 받기 전, 북한 혁명가로서 활동했던 김규민 영화감독은 공개처형 10일 전, 일부러 긴 못을 삼켰고, 병원에서 깨어난 후 남한으로 피난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다룬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팀창 교수는,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대사명에 순종"이라며 "리버티는 오랫동안 한국과 관계를 가져 왔으며 북한을 위해 기도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행사는 한국이나 우리가 선호하는 두 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합한다"라고 덧붙였다.

작년 2024년 9월, 리버티는 제2회 통일한국 정상회담(Unify Korea Summit)을 개최하였고,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와 케일럽 미션(Caleb Mission) 설립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김승은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유니파이 코리아 (Unify Korea) 클럽의 부회장인 국제관계 전문가 엄비 최는 북한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유는,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자유를 위한 싸움은 "단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열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학에는 북한 인권 기구나 학교 동아리가 많이 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다른 동아리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가져다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한편, 3월 11일(화) 오전 11시 15분에 바이올라 대학교 김스 다이닝 홀에서 **〈8.15 80주년을 향한 150일〉**모임을 연다. 참석은 선착순 80명으로 제한된다. **주디 한 기자**

참석 예약: 샘 신 목사 (213) 215-6029, samshin0127@ymail.com
허버트 홍 목사 (909) 490-9196 | herberthon@gmail.com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 포럼 개최



미주 한인교회 교육과 다음세대를 위한 대안 모색

미주 한인교회들의 다음세대 부흥과 교육을 위한 "동행과 상생 포럼"이 3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미주복음방송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0 공교육과 교회학교" 및 "교육목회자 절대 부족과 대안"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미국 내 한인교회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차세대 교육 목회자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주요 내용

1. 트럼프 2.0 공교육과 교회학교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공교육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한인교회의 대비책을 논의한다. 특히, 공립학교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Lighthouse Mission Church ED 디렉터이자 Head Start ECRES 전문 교육가인 킴벌리 김(Kimberly Kim)전도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2. 교육목회자 절대 부족과 대안

현재 미주 한인교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목회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한인 교회들의 주일학교 운영과 2세 사역자을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이어서 동행과 상생이 신학교와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육 디렉터 양성을 위한 온라인 인증 과정을 소개한다.

12주 교육 디렉터 온라인 과정

본 포럼에서는 미주 한인교회의 차세대 교육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12주 교육 디렉터 온라인 과정"이 공식 발표된다. 이 과정은 교회학교 사역을 담당할 전문성을 갖춘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과정 수료 후에는 동행과 상생 네트워크를 통해 사역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 사역

이번 포럼은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사역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동행과 상생(Together & Thriv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본 프로젝트는 △전문 평신도 사역자 양성 △교육 리소스 제공 △네트워크 지원 △2세 교역자 양성을 통해 미주 한인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 참가자들에게는 사전 등록 시 점심 식사가 제공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등록은 공식 웹사이트 www.TNTUS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포럼 일시: 3월 10일 (월) 오전 11시 30분 (사전 등록자 점심 제공)
장소: 미주복음방송 (KGBC)
주최: 동행과 상생,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TNTUSA.org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행복이란,
소중한 이와 좋아하는 곳을
계속 걸을 수 있는 것.
당신의 행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센터메디컬그룹
8,000명 시니어의 현명한 선택
새로운 행복을 정의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 -3098

故 김명혁 목사 1주기 예배…
“신학자이자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



김명혁 목사 1주기 추모예배

한국 복음주의 지도자 故 김명혁 목사의 1주기 추모예배가 17일 오전 강변교회(담임 이수환 목사) 3층 예배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예배에는 할렐루야교회 원로 김상복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김학유 목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총장 오덕교 목사, 21세기시니어선교회 대표 한정국 선교사 등이 참석해 회고사를 전했다. 또 고신대 손봉호 석좌교수, 경동교회 원로 박종화 목사, 기독교학술원 김영한 원장 등 교계 원로들과, 고인의 큰딸 김혜원 선교사, 사위 이승일 선교사, 손자 등 유족들도함께 했다.

임석순 목사는 ‘그의 삶이 곧 메시지였다’(딤후 4:6~8)는 제목의 설교에서 “김명혁 목사님은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화려한 언변보다 진실한 기도를 택했고, 논쟁보다 사랑을 선택했다. 그의 신앙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고, 그의 신학은 깊었지만 겸손했으며, 그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여운은 길다”고 했다.

이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순례자로 살아갔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주어진 길을 걸었고, 마침내 그 길을 완주했다”며 “그의 신앙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자”고 권면했다.

김학유 총장은 “김명혁 교수님은 역사학자로서 균형과 포용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사고가 경직되지 않도록 항상 포괄적이고 유연한 해석 방법을 가르쳐 줬고, 선교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한국의 선교신학을 바르게 이끌고 지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 ‘복음주의운동’과 ‘교회연합운동’을 통해 주요 교단의 벽을 허물고 각 교파들이 진정 하나가 되는 연합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전했다.

오덕교 총장은 “김명혁 목사님은 평생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 온 분”이라며 “목사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으며, 그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길을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정국 선교사는 “김명혁 목사님은 세계교회사를 관통하는 지혜를 가져 많은 신학생을 지도했고, 인간미 넘치는 사랑을 선교 현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표현했으며, 선교사들에게도 용돈을 주면서까지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주님의 선교를 위해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협력을 추구했다.

또 영혼을 사랑하여 친히 강변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인들과 함께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뿌리내리며 그 정신을 실천했던 전천후 사역자”라고 했다.

김명혁 목사의 큰딸인 김혜원 선교사는 “지금도 여전히 집안 곳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다. 늘 존경하고 그리워했던 한경직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 강원용 목사님, 종교인 모임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분들과 찍은 사진들이 한 곳에 보관돼 있다. 그 보물들을 보며 아버지의 삶과 사역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앞으로 유족들은 아버지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937년 6월 4일 일본 도쿄에서 부친 김관주 목사와 모친 유춘택 사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김명혁 목사는, 1938년 부모를 따라 귀국해 신의주와 평양에서 살다가 1948년 8월 신앙의 자유를 위해 홀로 38선을 넘어 월남했다.

이후 서울대 문리과를 졸업한 후 총회신학교를 거쳐 미국 필라델피아 페이스신학교(M.Div.), 웨스터민스터신학교(Th.M.), 예일대신학원(S.T.M.), 아퀴나스신학원 등을 졸업하고, 1980년부터 강변교회 담임목사, 합동신학교 부교수·교수·교장, 한기총 공동회장, 한복협 회장, 합동신대 교수, KWMA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다. 본지 편집고문으로도 20년 이상 재직하며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강혜진 기자

美 남침례회, 낙태 서비스 기관에 정부 지원 중단 촉구



미국 가족계획연맹.

미국 남침례회(이하 SBC)가 의회에 낙태 서비스 기관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SBC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이하 ERLC) ERLC 브렌트 레더우드 회장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전략의 초점이 현재 의회에서 진행 중인 화해 과정에서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상원은 이 과정을 통해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단순 다수결에 따라 해당 조치를 통과시킬 수 있으며,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개 의석 중 53개를 차지하고 있다. 레더우드 회장은 “공화당은 ‘가족계획연맹이 책임져야 하는 악(evil)’인 수백만 명의 태아 사망과 취약한 어머니들을 표적으로 삼는 방식들을 분명히 알고, 역사적인 공약과 서약을 했다”고 했다. 이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상원, 백악관에서 조정 과정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지금이 그러한 공약을 이행하고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재정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 납세자 자원이 이런 종류의 끔찍한 행동과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레더우드 회장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의 SBC 리더와 저명한 회원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우리는 하원과 특히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와 예산위원회에 이 메시지를 전달해, 이것이 납세자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며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과 상원에서, 지금은 역사적인 공약을 실천할 순간”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탄핵정국서 다시 주목받는 故 하용조 목사의 '시대정신' 설교

**옛날엔 교회 · 목사 말 세상이 들어
요즘은 전교조 · 노사모가 시대정신
보수 · 복음주의 논객들은 겁쟁이들
감옥 갈 생각 별로 없고 투쟁 못해
운동권들, 20%도 안 되지만 연대
기독교 80% 세력 가지고도 못뭉쳐**

현 탄핵정국에서 보수·복음주의 기독교계가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온누리교회를 설립한 故 하용조 목사의 생전 '시대정신'을 주제로 한 설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교회가 보수·복음주의 논객을 키우지 못했다"는 그의 일침이 지금 상황에서도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시각 때문이다.

하 목사는 노무현 정부였던 지난 2006년에 했던 설교에서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매력있나? 이 시대정신을 교회가 끌고 가는가? 교회가 못끌고 간다. 숫자만 많았지 이 시대정신을 교회가 대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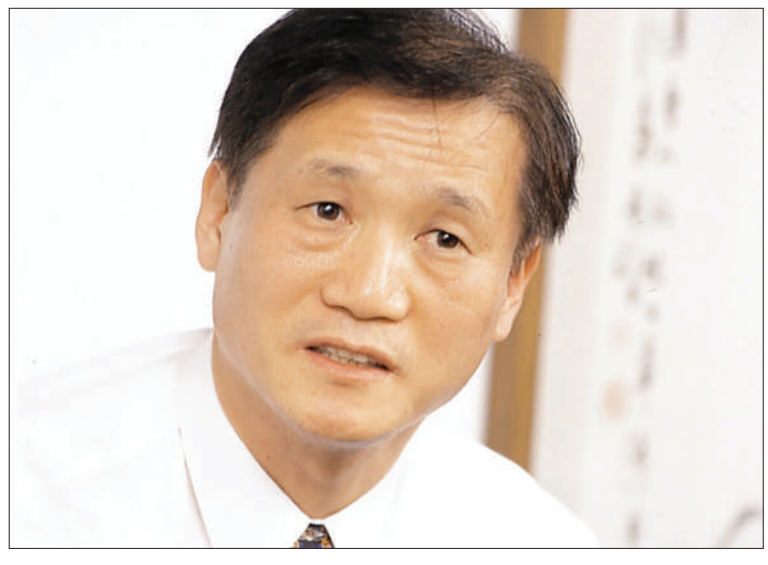
그는 "옛날에는 빌리 그래함도 있었고 엑스플로도 있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가, 목사님이 말 한 마디 하면 세상이 들었다. 한경직 목사님도 있었고 박윤선 목사님도 있었고 등등이 있었다. (그러나) 없어졌다 요즘은. 다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전교조가 시대정신을 끌고 간다. 노사모가 시대정신을 끌고 간다. 노조가 시대정신을 끌고 간다. 기독교는 그 소리가 다 묻였다. 결론, 우리 기독교가 이 시대정신을 끌고 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목사는 "(운동권들은) 전부 연대를 한다. 다 각자지만 보면 큰 세력이 연대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정신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이론을 세상에 전하는 거다. 숫자는 소수다. 20%도 안 된다"며 "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판 치는 거다. 크리스천들은 80%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뭉치지 못하고 논객이 없고 겁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하용조 목사의 해당 설교 전문.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매력 있나? 이 시대정신을 교회가 끌고 가는가? 교회가 못끌고 간다. 숫자만 많았지 이 시대정신을 교회가 대표하지 않는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대표했다. 그 당시는 CBMC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게 영향력이 있었다. 1세대 선배 크리스천들이 그걸 잘 끌어 갔다. 그 사람들이 기업가로서 다 재벌에 해당했다. 지금은 크리스천 재벌이라는 게 없어졌다. 최근에 이랜드가 재벌이란 단어를 쓰더라. 알로에마임 정도, 이랜드 정도밖에는 없다. 옛날에는 빌리 그래함도 있었고 엑스플로도 있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가, 목사님이 말 한 마디 하면 세상이 들었다. 한경직 목사님도 있었고 박윤선 목사님도 있었고 등등이 있었다. (그러나) 없어졌다 요즘은. 다 없어졌다.

그리고 요즘은 전교조가 시대정신을 끌고 간다. 노사모가 시대정신을 끌고 간다. 노조가 시대정신을 끌고 간다. 기독교는 그 소리가 다 묻였다. 결론, 우리 기독교가 이 시대정신을 끌고 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첫째, 논객이 없다. 이 시대정신을 끌고 갈 수 있는 논객을 교회가 만들지 않았다. 운동권이나 386세대를 대변하는 노사모를 지원하는 교수가 700~800명이다. 그 사람들이 이번 정권 들어서 다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연구소, 학교, 정부 조직에 이 700~800명 교수들이 다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정부를 보호하고 글을 쓰고 기존 보수 세력을 끊어내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 논객들이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사학법에 관한 얘기, 글 하나 쓸 사람이 없는 거다. 목회는 잘했는데 학자가 없는 거다. 따라서 TV나 언론이나 잡지나 이 사회에서 논객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이 시대정신을 못끌고 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보수주의나 복음주의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학자와 논객을 키워서 언론을 다시 장악을 해야 한다. 참여연대라든지 이 시민단체들은 거의 80~90%가 이쪽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게 시대정신을 만들어 가는 거다. 우리 한국교회의 언론을 보면 뉴스앤조이가 끌고간다. 부정적인. 우리 목회자들로서 이런 부분을 통찰력 있게 봐야 한다. 그리고 보수주의 복음주의자 논객들은 겁쟁이들이다. 감옥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막 글을 못 쓰는 거다. 투쟁을 못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이 시대를 뚫고 나가려면, 포스터모던과 종교다원주의와 이런 물질문명과 이런 이념이 평준화된 사회 속에서 꼭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논객을 키우는 것이다. 소위 변증이론을 만들어서 세속화와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던과 맞싸워 부딪힐 수 있는 방어벽을 구축하는 것. 그래야만 수많은 선한 세력들, 하나님의 세력들이 시대정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세상을 위한 교회 패러다임이다. 한국교회도 얼마나 교회 자체들이 다 이기적인 지 모른다. 연합과 팀워크는 못한다. 이걸 뚫어야 한다. 운동권들은 서프라이즈, 오마이뉴스 이쪽으로 가고 전교조, 전공노 이쪽으로 가고. 이게 전부 연대를 한다. 다 각자지만 보면 큰 세력이 연대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정신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이론을 세상에 전하는 거다. 숫자는 소수다. 20%도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판 치는 거다. 크리스천들은 80%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뭉치지 못하고 논객이 없고 겁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故 하용조 목사 ⓒ하용조 목사 홈페이지

김진영 기자

'106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자신의 행복만큼 나라의 행복 중요"

다산문화예술진흥원(원장 이효상 목사, 이하 진흥원)이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정약용도서관공연장에서, 연세대 명예교수이자 106세 철학자인 김형수 교수를 초청해 다산인문학 강연을 진행했다. 이 강연에는 36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대 음악대학원 강연재 군의 독창과 김광자 총무의 사회로 진흥원 주요 사업 영상을 시청하며 문을 열었다. 강연에 앞서 이효상 원장이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인 김민규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자문위원과 신안바다드림 정기석 대표 및 강옥희 여사를 신임이사로 추대하고, 노연주 모델과 정효원 모델·가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어 정귀석 상임고문은 "한 시대의 선견자이자 지혜자인 김형석 교수를 멘토로 삼고 시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진흥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자리에 오신 지도자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말로 환영 인사를 했다.



김형석 교수

이날 김형석 교수는 '시대를 관통하는 삶의 잠언,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내가 나답게 사는 비결 △인격의 핵심 △인생을 후회없이 살려면 △나이 들수록 경계할 것 △윤동주와 문학, 그리고 글쓰기 △참된 행복이란? △이 시대에 주는 교훈 △값진 인생을 살려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 등 10가지 테마로 강연을 이끌어 갔다.

이날 강연에서 김형수 교수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왔던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윤동주 시인, 황순원 소설가, 안창호 선생, 인촌 김성수 박사를 만난 경험담이 인격을 키울 기초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자신답게 하기 위해선 인격을 배양해야 하고, 사람은 자신의 인격만큼 살아가므로 인격을 키워야 하고, 사람은 아는 만큼 일하기 때문에 사상과 정신의 배움에 집중하고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키워내야 한다.

인격의 크기는 자기 그릇의 크기"라며,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해보고, 끝까지 가보자"라고 전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경계해야 할 것은 이기주의로,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그릇이 작다. 그러니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다. 자기 부하가 아닌 친구가 있는 삶으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의 행복만큼 나라의 행복이 중요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관계에서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하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CSW "'불법' 기독교 집회 혐의로 투옥된 中 목사 석방하라"



중국 기독교인들. ⓒ오픈도어

영국의 박해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중국 당국에 불법 기독교 집회 혐의로 투옥된 기독교인 목회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윈난성 출신 마얀(32) 목사는 10명 미만의 예배자가 참여하는 '불법 집회 조직' 혐의로 지난 2월 10일(이하 현지시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마 목사는 2024년 8월 9일 당국이 인촨 진펑 구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소규모 기독교인 집단을 급습했을 때 처음 구금되었다고 CSW는 전했다. 진펑구 공안국 공무원들은 마 목사와 교인 3명을 구금했고, '사회질서 교란' 혐의로 행정구금 명령을 내렸다. 이들 중 교인 2명은 7일간 구금되었고, 마 목사와 교인 1명은 10일간 인촨 구금 센터에 구금됐다. 마 목사기 8월 20일 행정 구금을 마치자, 진펑 공안국은 그를 '불법 집회 조직' 혐의로 형사 구금했다. CSW는 마 목사가 재판에서 '불법 집회 조직' 혐의에 대해 항변했는데 이 혐의는 다른 혐의에 비해 처벌이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9개월 징역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판결은 발표되지 않았다. 마 목사의 가족은 9개월 형이 확정될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에 있는 감시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는 마 목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기독교인이 되었고 나중에 닝시아 훼이(Ningxia Hui) 자치구에서 가정교회 설교자로 봉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윈난성 전셩(Zhenxiong) 출신으로, 구금되기 전 다른 설교자의 가족을 방문하여 지원을 제공했다.

마 목사가 구금된 후, 그의 가족은 기독교 모임이 불법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사회 질서를 방해한다는 혐의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중국의 여러 기독교 단체는 마 목사와 그의 아내 메이항을 위해 개인적, 영적 지원을 요청하는 기도 활동을 조직했다. 머빈 토마스 CSW 회장은 "마얀 목사의 체포 및 기소는 중국 공산당이 소수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고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위반한 또 다른 사례"라며 "CSW는 당국에 마 목사를 즉시 석방하고 무죄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를 감시하는 오픈도어는 중국에서의 기독교인 박해가 중국에서 종교 활동을 통제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엄격한 규제와 비등록 '가정 교회'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는 강화된 디지털 감시가 포함된다고 오픈도어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홍콩 목사 "홍콩, 종교의 자유 등 서서히 침식되는 중"



조나단 웡 목사 ⓒ복음언론인회

복음언론인회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잃은 홍콩의 조나단 웡 목사께서 공산권과 싸우는 한국교회를 향해 미국에 있는 정윤명 글로벌 국제 선교회 창립자 겸 회장께 보낸 메시지를 공개한다"며 "전 세계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이 시점에서,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압의 현실은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명임을 일깨우길 바란다는 메시지"라고 14일 밝혔다.

홍콩 베이 에어리어에서 목회 사역을 펼치고 있는 조나단 웡 목사는 홍콩에서 변화된 사회 모습을 사실에 기반해 전하며, 한국교회와 사회가 지금 더욱 단결하여 진리와 자유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렬하게 호소했다.

조나단 웡 목사는 "홍콩 교회와 홍콩 사람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 홍콩은 그동안 언론, 종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로운 사회였다"며 "1989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홍콩에서 전도를 펼쳤고, 저 역시 어린 시절 그 행사의 한 자리에 참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때의 땅은 복음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는 홍콩 교회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였다"며 "그러나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이양된 후, 상황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성, 보통 선거권, 부당한 법률에 맞서 목소리를 내려는 요구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많은 시위로 이어졌으나, 결국 강제로 중단됐다"며 "2020년에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홍콩과 중국 정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활동을 기소하기 위한 특수 경찰과 위원회가 설립됐다"고 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2019년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30일 제정하여 시행한 법으로, 홍콩 내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4가지 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주요 범죄로 명시하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민주주의를 지지했던 주유밍 목사, 정치 운동에 적극 참여한 신앙 고백 개신교인 베니 타이,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 홍콩 주교였던 조셉 젠 추기경 등이 체포됐으며, 일부는 홍콩의 안정과 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와 동시에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던 비충성 언론 매체들이 줄어들고, 과거 정치 집회를 조직했던 많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45
수요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청장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미 부통령 J.D. 밴스, 독일서 연설… "유럽, 보수 · 기독교 탄압 멈춰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유럽 정부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유럽 정부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P는 밴스 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에게 보수 성향의 목소리와 종교적 자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낙태 반대 시위에 나서거나 소셜미디어에 의견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조사받고, 체포되며, 기소되거나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 내에서 포퓰리즘 정당들을 정치 협력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유럽연합(EU)이 최근 시행한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과 관련해 나왔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검열 강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 법률 옹호 단체인 ADF 인터내셔널의 폴 콜먼 사무총장은 "유럽은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 하고 있다"며 "새로운 양극화된 언론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은 "자국민의 목소리와 의견, 양심을 두려워하는 한, 안보는 있을 수 없다"며, 유럽 내 표현의 자유 억압과 유권자 뜻을 무시하는 것이 외부의 적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 반발

CP는 독일 정부가 밴스 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밝혔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신정부가 우리와 매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히며,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밴스의 연설 중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아니다!"라고 외쳤으며 "유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최근 독일 뮌헨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군중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2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유럽의 어떤 유권자도 수백만 명의 경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투표하지 않았다"며, 이민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의 공동 대표인 앨리스 바이델은 X(구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연설!"이라며 밴스 부통령의 발언을 지지했다.

반기독교적 차별 사례 언급

밴스 부통령은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사람들이 처벌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 내 반(反)기독교적 차별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영국의 아프가니스탄 참전 군인 애덤 스미스-코너가 잉글랜드 도싯(Dorset)의 낙태 클리닉 근처에서 침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스미스-코너는 향후 2년 내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유예받는 조건부 방면 판결을 받았다. 밴스 부통령은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들은 미국의 안보 지원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최근 독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역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사안을 언급하며, "미국 민주주의는 그레타 툰베리의 꾸지람도 수년 동안 견뎌왔다. 독일 민주주의도 일론 머스크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인도 총리 美 방문… "기독교인들, 종교 자유 우려 제기"

케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현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세계기독연대(ICC)는 모디 총리와 그의 정당인 인도인민당(BJP)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조직적 증오 연구 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 혐오 발언 사건이 지난해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독교인이 이러한 사건에서 불균형적으로 표적이 되었으며, 인도 인구의 2.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의 약 1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기독교가 아닌 희생자의 대부분은 무슬림이었다.

기록된 사건의 80%는 모디 총리의 인도인민당이 통제하는 주에서 발생했다. ICC는 이에 대해 "인도인민당은 소수 종교인을 합법적으로 폭로하고 심지어 평화로운 기독교도와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ICC는 인도 28개 주 중 12개 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개종법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법률은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 잠재적으로 국가에서 승인하지 않는 모든 종교 활동을 범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는 '허위 진술, 부당한 영향력, 강압, 유혹 또는 사기적 수단에 의해 한 종교에서 타종교로의 개종'할 경우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법에 쉽게 어긋날 수 있다.

ICC는 또한 이러한 법률이 자경단을 은폐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의 성직자들에 따르면, 찬송가를 부를 경우 누군가를 개종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힌두교 폭도들이 교회나 예배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연구원인 루크 윌슨은 이 법률에 대해 "인도가 국가 차원에서 반개종법을 시행하는 것은 이 법률의 의도가 기독교와 이슬람과 같은 선호되지 않는 종교로의 개종을 막는 것이지 강제 개종을 방지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교회가 진정으로 활력을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5가지 지표



ⓒ Pixabay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샘 레이너(Sam Rainer) 목사가 쓴 '교회가 진정으로 활력을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5가지 지표'라는 제목의 칼럼을 최근 게재했다. 샘 레이너 목사는 미국 기독교 리소스 웹사이트인 '처치앤서스(Church Answers)' 회장이다.

레이너 목사는 "어떤 면에서 교회 건강은 지속적인 여정이다. 거기에 진정으로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불가피하게 어지러울 수 있다. 건강한 교회는 많은 새로운 신자가 있을 것이고, 이는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자도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레이너 목사는 "그러나 교회가 재활성화 단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교회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몇 가지 주요 지표가 있다. 이 다섯 가지 지표는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재활성화 과정에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어린이와 학생이 평균 예배 참석자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예배 참석자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캠퍼스의 모든 사람이다. 이 계산에는 어린이가 포함되지만, 중복해서 계산하지 말라. 어린이와 학생(18세 이하)이 평균 예배 참석자의 25% 이상을 차지하면 건강한 한계에 도달한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의 어린이와 학생 사역 예산은 예배 예산과 같거나 초과해야 한다.

2. 전환율이 20:1 이상에 도달한다.

건강한 교회는 전환율(Conversion ratio)이 20:1 이하다. 전환율이 작을수록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데 필요한 사람이 줄어든다. 이 지표에서는 작을수록 좋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1:1이면 교회의 각 사람이 매년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환율이 100:1이면 교회의 100명당 매년 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의미다.

3. 헌금이 지속적으로 지출을 초과한다.

쇠퇴하는 교회는 종종 현금 흐름 문제가 있다. 그들은 선물과 헌금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 이러한 적자는 종종 필요에 의한 것이다. 지붕 수리 및 에어컨 업그레이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 현금 비축금은 한 시즌 동안 완전한 재정 붕괴를 예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비축금으로 몇 년 이상 버틸 수 없다. 활력을 되찾은 교회는 기부금이 지출을 초과하는 지점에 도달하고, 현금 비축금은 고갈되기보다는 쌓인다.

4. 연기된 유지관리가 최소화된다.

연기된 유지관리(Deferred maintenance)는 예산과 현금 제한으로 인해 인프라와 자산에 필요한 개선을 연기하는 과정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는 필요한 자본 프로젝트를 연기하게 된다. 활력을 되찾은 교회는 연기된 유지관리를 해결하고 운영 예산에 항목으로 포함할 명확한 계획이 있다.

이미경 기자

美, 불법 이민자 교회에서도 잡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관의 종교 집회 장소 출입을 허용한 데 대해, 미국의 기독교와 유대교, 종교 협의회를 포함한 여러 종교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개 이상의 종교단체들은 최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민 및 관세 집행국이 종교 집회 장소에 대한 급습을 허용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장된 종교적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문에서 "예배, 사역 또는 기타 회중 활동 중에 이민법 집행 조치를 취한다면, 그들의 종교 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것은 성소의 봉헌된 공간을 없애고, 공동 예배를 좌절시키며, 회중과 구성원을 위한 종교적 표현과 영성 실천의 핵심인 사회봉사 활동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고측 단체로는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Mennonite Church, USA), 아프리카 감리교 시온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성공회교회(Episcopal Church), 그리스도의제자들(Disciples of Christ), 형제교회(Church of the Brethren), 미국장로교(PCUSA), 연합그리스도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와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의 지역 기관이 포함된다.

이 외 라틴계기독교전국네트워크(Latino Christian National Network), 미국랍비중앙회의(Central Conference of American Rabbis), 노스캐롤라이나교회협의회(North Carolina Council of Churches), 유대교개혁연합(Union for Reform Judaism), 미국연방유대교연합(Unitarian Universalist Association), 보수유대교연합회당(United Synagogue of Conservative Judaism) 등이 있다.

소송 대상은 미국 국토안보부와 크리스티 노엠 장관,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국, CBP 피트 플로레스 대행국장, 미국 이민 및 관세 집행국, ICE 케일럽 비텔로 국장대행 등이다.

진보적 복음주의 지도자인 짐 월리스 조지타운대학 신앙과정의센터 소장은 C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성경에 따라 '이방인'을 환영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신성한 예배 장소를 침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그것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며, 수정헌법 제1조와 종교 자유 회복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많은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교파와 전통을 하나로 모은 것으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이들을 위한 종교적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려는 성경적 의무를 위해 일어선 신앙 공동체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했다.

원고측 변호인인 켈시 코크란은 "전통은 문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난민, 망명 신청자, 이민자를 포용하고 섬기라는 종교적 의무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만장일치된 견해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코크란 변호사는 "국토안보부가 민감한 장소 정책을 철회하고 예배 장소에 대해 이민법 집행 조치를 한 갑작스러운 결정은, 수정헌법 제1조와 종교 자유 회복법에 따른 원고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의 사건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처음 제정된 해당 정책을 철회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이 정책은 ICE와 CBP가 학교와 교회 등 '민감한' 지역에서 이민법을 시행하는 것을 막아 왔다.

강혜진 기자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베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영화 보며 은혜 속에 빠져보세요

2월 22일 (토) 저녁 6:30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은혜 한인교회 기독영화 감상회

은혜한인교회 문화 사역국이 22일(토) 오후 6시 30분 비전센터 2층 친교실에서 기독영화 감상회를 다시 시작한다.

올해 첫 영화는 한국 선교 영화 '파파오랑우탄'(2018년 작품)이다. '파파 오랑후탄'은 말레이시아에서 20년째 원주민 사역 중인 박철현 선교사의 사역을 담은 영화이다. 영화 제목 중 '오랑후탄'은 사람을 뜻하는 '오랑'과 정글을 의미하는 '후탄'이 합쳐진 말로 원주민들이 박 선교사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대장암 말기를 선고받고도 힘든 정글 복음화를 이어가고 있는 '오랑후탄' 박철현 선교사의 원주민 사랑 이야기 '파파 오랑후탄'은 정글속에서 펴쳐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이다.

영화는 무료이며, 각 교회의 단기 선교팀들과 선교와 전도, 마지막 추수를 위해 영혼구원을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하며,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볼수 있는 PG 등급의 가족 영화이다.

교회는 매점을 운영하며 각족 음료수와 커피, 다과 그리고 저녁식사(불고기 덮밥)를 기존 영화관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판매한다.

2025년 상영할 영화로는 'Passion of Christ', '십계', 'Heaven is for Real', '레미제라블', 과거에 인기 있었던 영화 등이 있다.

문의: 714-446-6200

김민선 기자

연세대학교 연합신대 미동부동문회 신년예배 및 하례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가 신년예배 및 하례회를 열었다. 사진 앞줄 왼쪽 회장 박성원 목사, 가운데 김에스더 목사, 뒷줄 왼쪽부터 총무 최병관 목사, 부회장 장재웅 목사, 김창길 목사, 노순구 목사. ⓒ미동부동문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가 12일 오전 11시 뉴저지 잉글우드에 위치한 개신교수도원수도회(원장 김에스더 목사)에서 신년예배 및 하례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박성원 목사가 회장으로 연임됐고, 부회장에 장재웅 목사(워싱턴 하늘비전교회), 총무에 최병관 목사(맨해튼선교회 총무), 서기에 문정웅 목사(뉴저지갈보리교회)가 각각 인준을 받았다.

앞서 열린 예배는 동문회장 박성원 목사(더나눔하우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총무 최병관 목사가 기도를 맡았다. 장재웅 목사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레 19:32-37, 시71: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영호 목사(미동부 크리스찬아카데미 대표)의 광고 이후 김창길 목사(뉴저지장로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김길홍 목사가 식사 기도를 맡았으며,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노순구 목사(뉴저지 리버델교회)의 폐회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참석한 동문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격려와 화합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는 현재 미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교류와 참여를 권장했다.

김민선 기자

단신

▶미주복음방송 손경민 목사 초청 나눔 On 콘서트

미주복음방송이 2/14-2/23(주일)까지 '은혜'의 작곡가 손경민 목사와 The 은혜 워십팀을 초청해 '나눔On 희망On 자선콘서트'를 개최한다.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kgbc.com)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2/21(금) 7pm- 얼바인온누리교회
2/22(토) 6pm- 에브리데이교회
2/23(주일) 6pm- 충현선교교회

▶평신도를 위한 이단 대책 세미나

남가주 평신도를 위한 이단 세미나가 2월 26일(수) 오전 10시에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열린다.

▶ 2/28 나성순복음 51주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는 2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교회 설립 51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를 드린다.

▶ 동양선교교회 아르모니아 싱어즈 초청 찬양 콘서트

3월 8일(토) 오후 6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본당에서 클래식 성악가와 챔버 앙상블로 구성된 '아르모니아 싱어즈' 초청 연주회가 열린다.

▶ 선교사 자녀 위한 미술공모전

선교사 자녀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미술 공모전이 2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열린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선교사의 자녀이다. 출품분야는 회화, 일러스트, 디지털 아트 등이다.

공모의 주제는 '소망의 빛을 담다'이며, 참가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품을 안전하게 포장해 지정된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작품 제출 마감일은 3월 25일이다.

문의: gaonartgallery@gmail.com
작품 제출: 618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참가신청: https://forms.gle/RJEAwLo8EN3TEnAVA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찬양 예배 전문 인도자 및 반주자 청빙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1. 찬양 예배 전문 인도자 1명 (파트타임)과 2. 찬양 예배 반주자 1명 (파트타임)을 청빙한다. 지원 자격은, 1. 찬양 예배 전문 인도자: 찬양예배 인도 경험 및 음향 관리 경험자 2. 찬양 예배 반주자: 찬양 예배 반주 경험자이다.

지원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1부(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 혹은 사역지 책임자)이며, 모든 지원 서류는 이메일(kcocoffice2@gmail.com)과 프린트된 문서(교회 주소로) 두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 여부는 개별 통지한다.

교회 주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 남성사역 컨퍼런스

남성 사역을 연구해 온 패트릭 몬리(Patrick Monley)의 저서 〈My Jorney〉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남성 사역단체 '맨 인 더 미러' 한국지부 대표로 활동해 온 이병일 목사가 강사로 서 3월 24일(월) 오전 10:30-1시까지 LA사랑의교회에서 남성사역 세미나를 인도한다.

문의: 213) 434-1170 (기독일보)

민종기 칼럼

하나님의 탁월한 건국 운동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프랑스의 개신교 사상가 자끄 엘륄(Jacques Ellul, 1912-1994)은 젊은 시절 마르크스주의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심하였습니다. 그의 복음주의적 회심은 이 시대의 시대사조에 대한 복음주의적 분석으로 여러 책 속에 소개됩니다. 지적인 방황 속에 있었던 저의 젊은 시절, 사회문제로 갈등하며 비전을 찾던 젊은이에게 그의 빛나는 기독교 지성은 더운 날의 얼음냉수였습니다.

그 젊은 시절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정치학도에게 주어진 성경 또한 매우 도전적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혁명적 사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토지제도, 법치주의와 정의 등 고대의 성경이 제시하는 가르침은 금방 사회 속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소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개신교 사상가 폴 리쾨르(Paul Ricoeur, 1913-2005)에 대한 논문을 쓰며 이러한 가설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건설을 앞두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이념 전쟁의 시대에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있느냐"(신 4:8).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차별적인 나라를 건국하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신명기 언약을 통한 법전의 완결을 앞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정부의 역사 I,II,III』(1997)라는 고전을 남긴 옥스퍼드 대학의 사무엘 파이너(S.E. Finer) 교수는 고대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서구의 역사 속에서 미친 정치적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이너 교수는 모세로부터 바벨론에 의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1000년을 넘기지 못한 국가, 왕조로는 500년이 지속되지 않은 나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경이로운 법전, 율법에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파이너의 교수는 전제정치로 가득한 중근동에서 이스라엘이 역사상 최초로 "제한군주제"(limited monarchy)를 가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왕이나 황제가 거의 신성한 권력을 가진 나라들과 달리, 유대왕국에서는 왕이나 사사(judges), 혹은 어떤 제사장도 신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후대에 미친 정치적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첫째, 왕이 있기 전에 카리스마적 선지자와 종교적 예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둘째 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선지자에 의하여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이나 나폴레옹 법전처럼 정치가가 이름이 붙지 않은 하나님의 법, 즉 신법(divine law)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입법자가 되심으로 왕은 법 아래에 있어야 했고 법에 복종하여야 했습니다. 이는 장로교 목사 사무엘 러더포드(S. Rutherford, 1600-1661)가 말한 "왕에 앞서는 법"(Lex Rex)으로 법치를 말한 것과 같습니다. 넷째, 왕이 법을 넘어서는 전제적 위치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왕을 질타하였습니다. 다섯째, 그 자애로운 신법은 백성의 자유, 자영농을 보장하는 경제적 자립, 그리고 안식년 · 희년법에 의한 극빈자의 회복을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나라는 신분의 평등, 자유로운 삶, 그리고 경제적 평등이 배려되었습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수상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이 집필한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는 국가의 발전이 지정학적 요소, 문화적 요소나 지도자 개인의 지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 포용적 제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인용하여 "포용적 정치 · 경제 제도"가 어떻게 "착취적 정치 · 경제 제도"를 이기고 승리했는가를 말합니다. 신음하는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의 통찰로 해결할 기독교 지성들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이병일 칼럼

남성 사역 소개 (4)



이 병 일 목사
맨인더 미러
한국지부 대표

한국교회의 특성상에 다른 모든 사역과 같이 남성 사역도 담임목사님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이는 시작하기가 힘든 것은 현실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많은 사역 및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의 진행을 위해 다수의 부 사역자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과중된 사역들이 단순히 또 다른 일로 취급되어 기쁨이 없이 자신의 의지로만 사역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동원, 오정현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 '뜨거운 감자'로 그리고 "혈관 수술의 Golden Time" 으로 표현되고 있는 남성 사역은 시작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성육신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희생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동일한 과정이 바로 이 남성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남자들이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남자들에 가슴에 예수의 두 글자가 새겨지므로 이 남자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변화야 말로 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작품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남성 사역을 시작하려면 동반되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리더 대부분이 남자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수술의 시작은 바로 우리들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리더들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실상은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 그룹들은 외롭고 고립되어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하시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열고 삶의 현실을 믿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나 멘토가 없어 너무도 외로운 여정을 걷고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과 미국 교회를 다 경험하면서 목회자와 리더 그룹의 만남에서 큰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체면 문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미국인들의 모임이 진지하고 솔직하였다면 우리들의 모임은 무언가 그저 서로가 겉돌다 헤어지는 느낌으로 돌아선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나와 지금 이야기하는 상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도 나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프라미스 키퍼스(Promise Keepers)의 공동 설립자면서 빌딩 브라더스(Building Brothers)를 설립한 댄 샤퍼(Dan Schaffer) 목사님은 '관계를 통한 제자 훈련(Relational Discipleship)'을 통한 남성 사역에 헌신한 분이며 그의 '효과적인 남성사역(Effective Man's Ministry)'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의 방어막을 제거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면 자신의 안전 지대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도나 다른 남성들에게 자신의 실패와 고민을 실제로 알게 되면 자신의 리더십을 잃을 것이란 두려움 안에 있지만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생각이며, 현대의 젊은 남자 성도들은 자신의 목회자도 자신이 매일 접하는 도전을 똑같이 접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임을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 주며 동행 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은 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맨 인더 미러(Man In The Mirror, 이하 MIM)'의 설립자인 패트릭 몰리(Patrick Morley)는 새로 발간된 〈My Journey〉라는 소그룹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들은 성경, 소그룹,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90% 이상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남성들과 일대일과 소그룹 제자화 사역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지만 이 사역이 특별히 남성 목사님들 본인으로부터 적용이 시작 되어야 한다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예배와 말씀준비 그리고 이 남성 사역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와 희생에 비해 신속한 결과를 볼 수 없다는 효율성을 비교하며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제자화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떠나 나와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과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는 제자의 여정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이 '나의 삶의 여정' 남성 소그룹 교재의 가장 바람직한 사용방법은 먼저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이나 평신도 리더들이 작은 소그룹을 형성해 목사님 주관으로 매주 혹은 격주로 같이 모여 각 챕터 마다 주어지는 3가지의 목표를 이해하고, 각 목표에 따른 3가지의 질문에 대해 각자가 준비해 온 답을 나누고 해당 챕터에서 각자에게 성경이 주신 마음과 자신의 삶의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결론과 개인적인 성찰과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을 유지하면서 구성원 각자가 준비 되는대로 평신도 소그룹을 구성해 그 그룹을 인도해 나가시면 됩니다. 각 그룹의 리더들은 준비되는 대로 저희 MIM 스텝들과 그룹을 인도하는 남성 사역의 전문적인 방법과 그룹 형성과 유지, 지속성에 관한 연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쉽지는 않지만 남성 소그룹의 형성과 운영에 대한 MIM 의 오랜 경험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씽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뜸 10회 (체온상승)
- 부황 20회 (혈액순환)
- 마사지 30회
- 훈욕 1시간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를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t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지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구봉주 칼럼

캄보디아 예수 마을 단기선교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담임

20여 년 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무렵에는 단기선교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낯선 외국 땅에 가서,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선교 사역을 한다는 설정 자체가 그다지 유익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주 한인 2세, 3세,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가까운 멕시코 선교를 다녀오면서, 단기선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게는 단기선교에 대한 또 다른 의구심이 있었는데, "과연 단기선교팀이 선교사님들에게 보탬이 될까? 오히려, 단기선교팀을 돌보느라 선교사님들께 폐가 되지 않을까?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리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선교지에서 현지인 교회 예배를 참석하여,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조심스러워 하는 편입니다. 어쩌면, "꺼려 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충분히 이해하여, 설교 주제와 예화를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저는 선교지 현지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분들에게 물질과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낙후된 환경이 완전히 변하여,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기도 애매한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제 설교가 선교사님들에게 짐을 안겨드리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단기선교팀이 실망하지는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통이 불가능하니, 전도도 어렵고,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선교팀을 파송할 때, 선교지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선교사님께 꼭 여쭈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기선교를 하면서, 그러한 의구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여, 현지인들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단기선교팀에게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후에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선교사님께서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격려와 위로가 되며, 현지 크리스천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도 그러한 확신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지속적인 캄보디아 선교 후원 가운데, 예수 마을 농업 사역을 위한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는 전신주들을 세우는 후원과 양계장 사역을 위한 냉동냉장창고를 후원하였으며, 5개의 현지 초등학교와 예수마을 교회 자녀들을 위한, 풋살(미니 축구) 경기장 공사를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단기선교팀 사역은 너무나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 마을 선교 사역 중 하나인 하루에 한 두 끼 밖에 먹지 못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식사제공 사역의 일환으로 쿤리엄 초등학교에 식사대접으로 섬겼고, 한 달에 한 두 번 목욕할까 말까 하는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수백명의 아이들에게 머리를 감기고 이발을 해주는 사역을 감당하였으며, 견과류 농장체험, 현지 초등학교 한글 수업, 영어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때마침 완공된 풋살 경기장에서 4개 초등학교 풋살 경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찌나 열심인지,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이 아이들 가운데, 캄보디아를 일으켜 세울 크리스천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단기선교팀의 모인 헌신으로 풋살 경기장에 남은 공사를 마무리할 만한 재정이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매년 풋살 경기 리그를 후원하겠다는 헌신의 손길과 결단도 있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선교사님도 감동, 단기선교팀도 감동, 현지인들도 감동이었습니다. 단기선교팀에 조인하십시오. 직접 다녀와야 후원할 맘, 기도할 맘이 생깁니다. 직접 만나봐야 선교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가 감사한인교회 단기선교의 슬로건입니다. 직접 오셔서, 말로만 듣던 선교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느낌과 감동이 전혀 다르실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섬기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니, 제가 더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2025년 여름, 가을 단기선교에 주실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김인수 칼럼

교회 분열의 원인



김 인 수 목사
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총장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3)

기독교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공평하게 도움을 주지 않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도와주면서, 헬라파 과부들은 빼는 일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비록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유대교적 전통이 남아 있어 이방인으로 교회에 들어 온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한 것입니다.

교회 분열의 전형(典型)은 고린도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한 두 파도 아니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위어 분쟁을 일으켰습니다.(고전 1:12)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몸이신데, 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도들을 따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의 모습 보니까, 그야말로 이민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분열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가 들어가서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역사하는 동안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복음의 불순종입니다. 성도들은 수시로 성경을 읽고 주일이면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교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남보다 좀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세우고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성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인데 지방색입니다. 미국같이 넓은 땅에 3억이 넘는 인구가 살지만, 적어도 지방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남부와 북부가 노예 문제 때문에 전쟁까지 치렀지만,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동부와 서부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히 남과 북, 동과 서가 갈라져서 교회 안에서도 지방으로 갈라져 결국 분열하고 맙니다.

위에 열거한 교회 분열의 원인을 성찰하면서, 교회는 복음 선포와 구제에 전념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샬롬.

하늘바라기

감사 -김은주

살아 숨쉴 수 있음에 감사

영혼에 기쁨으로 채우시니 감사

부르는 이 없어도

함께하는 이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주님 함께하므로

행복할 수 있으니 감사

김은주 시인은 2012년 한국 청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마치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뉴질랜드에서 9년간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전문인 선교사의 길을 걸어왔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대학교에서 목회학(M.Div)을 전공하였고, 2022년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선교사 탈진에 관한 비평적 통찰"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울타리글벗문학회」 회원,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Action Camp 장은…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3. 샤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ACTION CAMP
FAITH & HOPE

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

ACTION CAMP
- HEALING
- EDUTAINMENT
- SPORT
- MEDIA
- GREEN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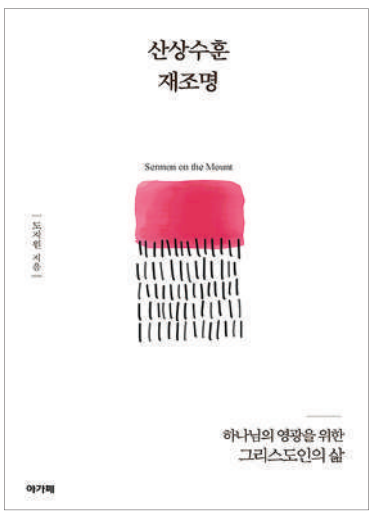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ion CA 93510

Scan me!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신실하게 살아갈 힘과 지혜와 은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시 들어야 할 산상수훈



산상수훈 재조명

도지원 | 아가페 | 600쪽 | 30,000원

산상수훈은 도덕률도 피상적인 교훈도 아니다.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산상수훈은 제자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실을 말해 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분명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에 끊임없이 주목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2000년 예수비전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도지원 목사는 2012년부터 전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리와 부흥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드 존스 등 청교도 개혁파 주요한 인물을 다뤄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2024년) 존 맥아더 목사의 설교와 목양에 관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콘퍼런스가 다루는 주요 주제와 인물만 봐도 도지원 목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충분히 알 만하지만, 보통 어떤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과 실천의 중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려면 담임목사의 설교나 저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도 목사가 쓴 〈산상수훈 재조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목 그대로 마태복음 5-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강해설교한 설교문이다(총 60편, 600페이지).

이 책에 추천의 글을 남긴 몇몇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도지원 목사는 "문맥적 의미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특정 표현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있어 사전적인 의미 혹은 단편적 의미에 만족하지 않고, 원저자가 마태복음 전체에서 어떻게 그 의미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해석의 지평을 마태복음에만 한정하지 않고 성경 전체로 확대해 다른 본문과 유기적으로 연관 지음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의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이 책에 묻어나는 신학에 관한 평가로는 "청교도적 개혁주의의 향기가 깊이 배어 있으면서도 최근의 산상수훈 연구도 꿰뚫고 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을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근거해 심도 있게 해설하고 있으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했던 칼빈과 청교도의 성경 해석 전통에도 충실하다" 등이 있다.

케빈 드영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산상수훈 연구 결과 이 특정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이 서른 가지가 넘는다고 했는데, 도지원 목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대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음을 바르게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물론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취득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 그렇다 해서 지키지도 못할 법을 잔뜩 쏟아부은 다음 "너희로서 할 수 있는 건 회개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 부르신 "내 아버지 하나님"과 "너희(예수님의 제자들)", 그 둘의 관계가 친밀하고도 화목하게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오직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열매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차별되는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이다.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되는 일이 아니라,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다. 뿌리가 아니라 열매이고,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은 선물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종을 간과한다. 단순히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한 제자들은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한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는다. 그 구체적 실천 방안에 관해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살아계신 말씀이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써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다.

앞서 여러 추천인들이 칭찬한 것처럼, 도지원 목사는 본문을 철저하게 문법적-역사적 성경해석 방법에 따라 해설한다. 특별한 신학 사조나 유행하는 사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 수고한다.

성경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데, 이는 본문에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예리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는 마태복음 내, 멀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 용례를 파악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총 60편의 설교는 각각 동떨어져 있지 않고, 산상수훈이라는 커다란 문맥 안에서 계속해서 조명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신자의 순종의 관계는 철저하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를 개혁주의 신학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 아래 균형을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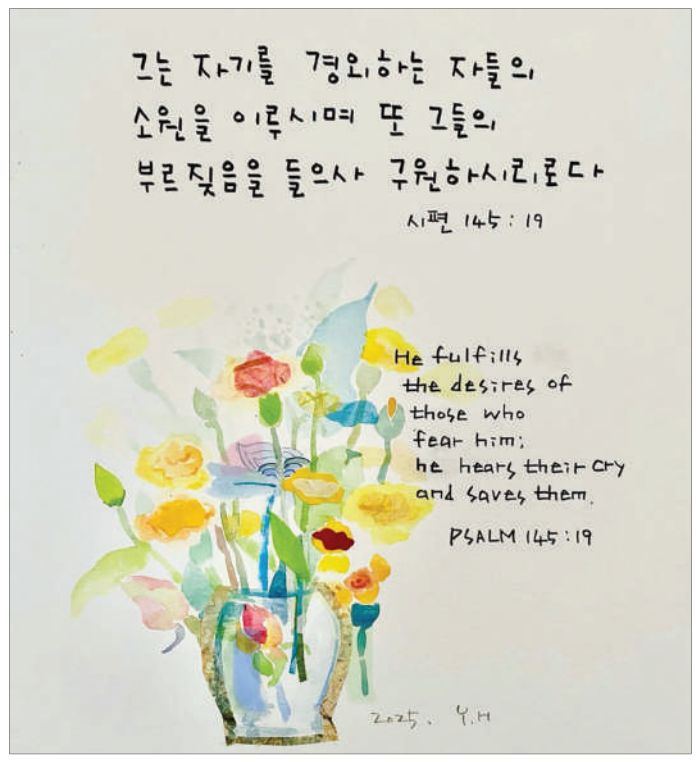
도 목사의 설교문엔 적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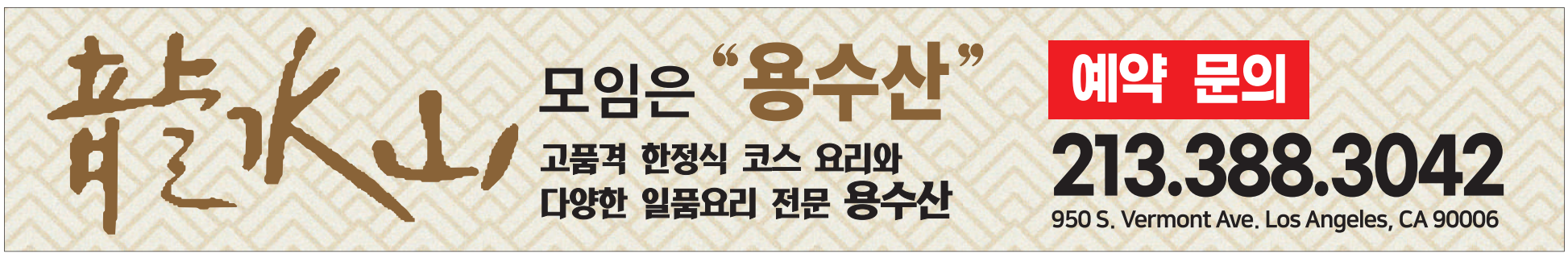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원한다. 세상과 다른 삶을 꿈꾼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시는 것을 가슴 깊이 원한다. 먼저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이 땅에서의 물적·육적 필요를 주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실 것을 믿는다. 바로 그런 바람과 원함을 구체적으로 삶에 드러내기 위하여 독자에겐 산상수훈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산상수훈을 다룬 훌륭한 양서가 많이 있지만, 도지원 목사의 이 책 또한 모든 독자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게 할 힘과 지혜와 은혜를 더할 것이라 확신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청빙

주님의 빛 교회는 1998년에 오렌지카운티에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로서,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한 동사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자격요건
1.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실 분
2. 십자가의 복음 중심이며,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주님의 빛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
3.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사도신경과 장로교의 신앙고백에 동의하고, 그 믿음으로 목양하며 이끄실 분
4. 정규 신학대학원(M. Div) 학위를 가지시고, KPCA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5.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

■ 구비 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2. 학위증명서(M. Div.) 및 목사 안수증명서 사본
3. 신앙 고백문 및 목회 철학
4. 사모님 신앙 고백문 및 간단한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5. 설교 영상 2편 (1년 이내. 파일이나 온라인 주소)
6. 추천서 2부 (추천인이 직접 pdf 파일로 이메일 발송할 것)

■ 접수 및 문의
1. 서류 접수 및 마감 : 주후 2025년 2월 28일까지 (이메일, 카톡, 문자, 혹은 우편 접수)
2. 접수할 곳
revhrju@gmail.com, 전화(562)896-9191(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Lord's Light Community Church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3. 먼저 서류 심사 후, 청빙 후보 목사님들께 개별 통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참고 홈페이지 Lordlight.org. Youtube : 주님의빛교회(Lord's Light Community Church)

주님의빛교회 청빙 위원회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정 통큰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김동영의 '품다'

믿음을 지닌 예술가와 그렇지 않은 예술가의 차이

'구속의 아름다움' 유무 달려
서로 스텝 밟으며 움직이고 춤춰
아무리 팍팍해도, 생명 주신 그분
생각하면 살 만한 가치·보람 충분

칙칙한 배경 화려한 색 어울릴까
싶지만, 그만큼 메시지가 강렬해
예수님과 사랑이 가장 가치 있어
실재와 만남, 진리의 구속이 특징

미술계의 중진 김동영이 작품의 모티브로 삼는 것은 네잎클로버이다. 이곳저곳에 둥지를 튼 크고 작은 클로버들은 질화로같이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추억의 이름으로 다가온다. 네잎클로버 이미지가 어릴 적 동네 인근의 산과 들을 앞마당처럼 여기며 뛰놀았던 기억들을 떠오르게 한다.

김동영의 회화는 자연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연의 재현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만일 자연의 재현 자체를 겨냥했다면 '사실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디테일에 더 신경을 기울였겠지만, 그의 작품은 오히려 네잎클로버의 이미지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는 상징성을 띠면서 여러 색채와 질료와의 어울림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그의 작품에서 조형적 묘미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경쾌한 필선'과 '담백한 질료감'이다. '경쾌한 필선'은 화면에 운동감을 주면서 그림을 흥겹고 경쾌하게 만든다. 반면 '담백한 질료감'은 화면을 뚝배기처럼 우툴두툴하게 보이게도 하고 솜이불처럼 포근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게도 한다. 특히 근래에는 돌가루와 콜라주를 사용하여 잔잔한 율조를 지닌 공간을 구축해 내고 있다. 김동영이 작품의 모티브로 삼는 네잎클로버는 행운이라는 뜻의 꽃말에서 알 수 있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품다'는 이사야서 46장 말씀, 즉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4절)"는 구절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주님이 자신을 받아주신 감정을 캔버스에 펼쳐놓고 있는 셈이다.

작가가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를 고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작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축복의 연속'이라고 여기며, 행운은 바로 자신의 삶 속에 숨쉬고 있다고 여긴다. 즉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및 축복이요, 특히 그 분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시인 토마스 트래험(Thomas Traheme)이 그랬듯, 김동영은 세상을 '무한한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 '빛과 평화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어찌 인생에 황홀한 무지개빛만 있으랴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세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며 어떻게 '나날의 기적'이 펼쳐지고 있는지 주목한다. 그와 같은 측면은 단색조의 바탕에 영롱한 핑크색이 짙은 향기를 퍼트리거나, 아주 작은 씨앗들이 머물러 있는 광경에서 찾아진다. 주위를 보면 캄캄한 밤이거나 황량한 들판이어서 도저히 꽃향기가 퍼지거나 씨앗들이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김동영, 네잎클로버의 노래(A song of Four leaves Clover), 140x140cm, Mixed Media, 2011.



김동영, Embracing- 품다, 53x53cm, Mixed media on Canvas,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한 핑크빛과 씨앗들이 있기에 공간은 한층 밝아질 뿐 아니라 희망을 기약할 수 있다. 이것은 작가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표상하는 것이자, 그 분의 구속을 통해 만물이 새로워졌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믿음을 지닌 예술가가 그렇지 않은 예술가와 갖는 차이점이 있다면, '구속의 아름다움'을 포함시키는가 아닌가 하는 유무에 달려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남을 체험한 경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반면, 믿음이 없이는 그런 능력을 발견하기 어렵다.

'구속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분을 갈망하며 그 분에게 귀를 기울인다. 캔 가이어(Ken Gire)의 말을 빌면 "서로 스텝을 밟으며 움직이면서 춤을 춘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뿌리내린 김동영의 작품 세계는 바로 이 점을 표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세상이 아무리 팍팍할지라도, 생명을 주신 것을 상기한다면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보람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언뜻 보기에 칙칙한 배경 속에 화려한 색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만큼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아브라함 헤셸(Abraham Heschel)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는 어떤 청각장애인이 길을 가던 중 음악가의 연주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황홀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들은 미친 게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지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며, 그에 비할 만한 가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동영이 왜 그처럼 네잎클로버에 몰두하는지, 그가 기용하는 척박한 땅에 떨어진 꽃잎과 씨앗이 갖는 의미도 이와 연결해서 반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구가 낮에 밝은 것은 태양이 비추고 있음 때문이요 밤에 환한 것은 달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듯, 우리의 기쁨도-만일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라면-진리의 접목 또는 조명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실재와의 만남과 진리의 구속이 김동영의 회화를 한층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기총, WEA 서울 총회 개최 반대 포럼 열 것”

고경환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서 선언

수년 전 큰 혼란 · 아픔 겪었지만 65개 교단 2만 5백여 교회 회복
한기총 회복, 지켜주신 분들 덕
4월 한경직 포럼, 설립정신 고찰
WEA, 성경과 다른 복음 주장
포기 않으면 배도 행위 백서 출간
공산 · 사회주의 좌익과 이단에서
한국교회 보호하고 입장 대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2월 15일 오전 고양 순복음원당교회(담임 고경환 목사)에서 개최됐다.

예배 말미 취임사를 전한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한기총은 수년 전 큰 혼란과 아픔을 겪었다. 많은 단체와 교단들이 떠났고, 남은 분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소리들을 들어야 했다”며 “시간이 흘러 지금 한기총은 65개 교단 21개 단체가 소속돼 있고 2만 4,500여 교회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이렇게 회복된 것은 큰 혼란에도 끝까지 한기총을 지켜주신 분들 덕분이다. 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케이크 커팅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참석하신 순복음원당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일어나 감사의 박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취임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고 대표회장은 “2월 26일 1차 영성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열고, 4월 초 한경직 포럼을 개최해 한기총 설립정신을 되새기겠다”며 “5월에는 WEA 한국 개최 반대 포럼을 저명 신학자들과 함께 열어 문제점을 드러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WEA는 ‘세계복음연맹’이라는 의미이지만, (WEA가 말하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다. 한기총은 여기에 끝까지 반대하겠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WEA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려 한다면, 한기총은 신학자· 목회자들과 위원회를 구성해 ‘WEA 배도 행위 백서’를 낼 수도 있다. 초혼제와 종교다원주의 논란이 있던 2013년 WCC 총회도 소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표회장은 “10-20년 후 명예욕에 사로잡힌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과거에 WCC와 WEA 총회를 했으니, 우리도 개최하자’고 할 것 아니겠는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려는 것”이라며 “한기총은 공산주의·사회주의 등 좌익과 이단들에게서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한국교회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안이영 목사 사회로 공동회장 이영희 목사의 대표기도, 명예회장 박홍자 장로의 성경봉독, 순복음원당교회 찬양대의 찬양 후 기성 총회장을 지낸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가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느헤미야 1:1-5, 11)’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정익 목사는 “한기총은 66개 교단을 품었던 대표적 연합기관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절반 이상으로 축소됐다”며 “이 위기의 때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고경환 목사를 맞이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누가 지도자인지가 중요하다.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는 저 멀리 나라의 위기 가운데 지도자성을 발휘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찾는 대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아파했다. 지도자는 자신보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가 먼저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식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할 줄 알았다. 포로였지만 왕을 찾아가 진솔하게 보고했고, 고향으로 돌아와 비전을 선포하고 성전 재건에 앞장섰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적 지도력이다. 느헤미야는 좌우 진영을 따지지 않고 통합적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 위기의 때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만나게 돼 감사하다. 고경환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느낀 것은, 불편부당함 없는 전인적 인격을 가졌다는 점과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철학도 분명하고, 불의에 의분을 갖고 있다. 좌우를 아우를 줄 아는 통합적 지도자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정신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익 목사는 “한기총의 뿌리는 기도이고, 기도를 회복할 것이라는 고경환 대표회장님의 첫 일성이 마음에 남았다”며 “한국교회를 위해 더 이바지하고,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력을 크게 발휘하시리라 믿는다. 목사님 가시는 길에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복이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축사도 이어졌다. 먼저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은 “존경하는 고경환 대표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내조하시는 사모님께서 더 일이 많아지실 것 같아 위로를 드린다. 지난 임기 동안 위상을 드높이신 정서영 전임 대표회장님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운을 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기독교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손길을 내미셨고,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랑과 헌신의 발걸음을 해주셨다. 밤을 지새우면서 나라를 위해 바친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며 “한기총은 1989년 창립 후 복음의 사명에 앞장섰고,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켰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대표적 기독교 단체였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켜오신 희망의 불씨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 정치적 혼란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흔들려선 안 되는 원칙이 무너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기도의 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고경환 대표회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린다. 한국 기독교 부흥을 위해, 고경환 대표회장님을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포기·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겠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님의 유언처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자. 이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더 큰 기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은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 지난 36년 동안 정직과 절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오셨다. 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복음의 사명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해 오셨다”며 “그동안 헌신과 열정으로 많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공헌해 주셨다. 고양 지역 성도들을 대신해 그간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동환 시장은 “국가와 사회가 어수선한데, 잘 정리되리라 확신한다.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시기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다”며 “그러나 숱하게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로 진실한 하나 됨을 이뤄 주시리라 믿는다.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해 새로운 부흥의 마중물이 되어 달라. 하나님께서 대표회장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리라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영상축사를 전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한기총은 지난 36년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로, 대표회장님을 중심으로 기도의 초석을 다시 세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환영했다. 오세훈 시장은 “사회 정치적 갈등으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성벽 재건에 성공한 느헤미야처럼 목사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지혜가 함께 뭉친다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한기총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취임 감사예배는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의 광고와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고경환 목사는 에콰도르 하나님의성회 신학교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M.Div.),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를 취득했다(D.Min.). 에콰도르 순복음교회 개척 전도사를 거쳐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순복음원당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과 덕양구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공동회장, 사단법인 하나님의성회한국선교회 이사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오순절) 총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미경 기자

찬양 예배 전문 인도자 및 반주자 청빙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사역하실 동역자를 청빙합니다.

가. 모집대상
1. 3부 찬양 예배 전문 인도자 1명 (파트타임)
2. 찬양 예배 반주자 1명 (파트타임)

나. 지원자격
1. 찬양 예배 전문 인도자: 찬양예배 인도 경험 및 음향 관리 경험자
2. 찬양 예배 반주자: 찬양 예배 반주 경험자

다. 지원 서류
1. 이력서 (사진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2.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 소개 및 신앙고백 포함)
3. 추천서 1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목사 혹은 사역지 책임자)

라. 접수 및 문의
* 모든 지원 서류는 E-mail(kcocoffice2@gmail.com)과 프린트된 문서 (교회 주소로) 두개를 동시에 제출.
*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 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 사역자가 청빙되면 순서에 상관없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93
www.kcrcoc.com / 714-893-1652

SHARING BREAD FOR SOUL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눕시다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



전용대 목사



지경 교수



목사님! 성도님!
2025년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 가는 축복된 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닮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으로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영혼도 살리는 축복의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사순절 나눔의 금식은 사순절(40일) 기간에 한끼씩 금식하면서, 영육에 가난한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여 절약한 선교비(3불X 40일)를 선교지에 보내는 영성 훈련과 사랑의 실천 캠페인 입니다. 기도, 금식, 나눔 그리고 선교를 함께 실천하는 축복된 사순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World Share USA 대표 강태광 목사외 임직원 일동

2025 사순절 개요 시작일: 3월 5일 ~ 종료일: 4월 19일

World Share USA는 소망학교(아이티, 도니미카), 고아원(수리남), 전쟁 희생 유가족(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어떻게 참가할까요?

개인 월드쉐어USA로 사순절 나눔의 금식에 참가 통보 (가능한 미리 공지 및 통보 해주시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하시고, 사순절 금식 선교비를 월드쉐어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회 나눔의 금식 참가의사를 월드쉐어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참가를 권면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 선교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십니다.

월드쉐어 USA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의 극빈지역 아동들과 고아원 아동들의 사순절 기간에 양육 프로그램과 영혼을 위한 빵을 나누는 SBS (Sharing Bread for Soul)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5 사순절 나눔의 금식 준비위원회



민경엽 목사 준비위원장



박세헌 목사 부 준비위원장



김영일 목사 준비위원



안신기 목사 준비위원



양경선 목사 준비위원



최국현 목사 준비위원



이인규 목사 준비위원



써니김 목사 준비위원



김은목 목사 준비위원



진건호 목사 준비위원



양국민 목사 준비위원

Sharing Bread for Soul World ShareUSA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